

# 新東亞

1993.12

## 정치부기자 72인의 14대 국회의원 중간성적표

- 의정활동 ① 이해찬 ② 이석현 ③ 김원길
- 가능성 ① 이부영 ② 이해찬 ③ 손학규
- 신뢰도 ① 이부영 ② 김윤환 ③ 이만섭

# 月刊中央

1993.12.

## 女流들이 뽑은 韓國정치인 베스트 5

- ① 李富榮 ② 金泳三 ③ 李哲 · 李海瓊 ⑤ 金大中

여성표를 움직이지 못하면 敗亡하는 新시대. 커리어우먼은 어떤 스타일의 정치인을 좋아하는가

## 정치부기자 72인의 14대 국회의원 중간성적표

# 「운동권 출신 의원」들이 앞서간다



국회의사당



「의정활동」 부문에서는 李海瓚 李錫玄 金元吉의원이, 「장래 가능성」 부문에서는 李富榮 李海瓚 孫鶴圭의원이, 「의원상호간의 신뢰도」에서는 李富榮 金潤煥의원과 李萬燮의장이 상위를 차지했다. 세부문 10결에는 李海瓚의원, 두부문 10결에는 李富榮 孫鶴圭 姜在涉 李協 鄭大哲 諸廷坵의원이 뽑혔다.

新東亞 편집실



『운동원출신 의원』들이 앞서 있다.....

제165회 정기국회개회식, 李萬雙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1993. 9. 10.

**14**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 반이 지났다. 국민들의 눈에 비친 14대 국회는 어떤 모습일까. 본誌는 14대 국회의 활동을 살펴보고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기획했다.

국회와 국회의원의 활동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직접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국회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자료가 국민들에게 널리 제공돼 있지 못한 게 현실이다. 최근 경실련 등 일부 단체와 학자들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 분석 평가작업을 시작했지만, 아직 초기단계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수준도 아니다.

본지는 이러한 한계를 인식, 국회와 정당 및 의원 개개인을 취재대상으로 삼고 있는 신문 방송 통신의 정치부기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인상은 매스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현장에서 정치상황과 흐름을 지켜보는 기자들의 평가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국민들이 느

끼는 국회와 의원들에 대한 감정도 정확하게 대변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설문조사의 목적은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에 따른 활동을 해왔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의회정치에 대한 원론적 접근이나 특정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한 호오감을 드러 내려는 것이 아니다.

설문조사는 국회 및 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14가지의 설문을 작성(별표 참조), 국회 및 민자당 민주당 기자회견을 방문하여 출입기자 개개인에게 배포해 작성된

설문서를 회수하는 방식을 택했다. 배포된 1백여매의 설문지에 응답한 사람은 72명으로 응답에 고심한 흔적이 설문지에 배어 있었다.

## 평가 높지 않은 14대 국회 1년 반

92년 3월24일의 총선을 거쳐 구성된 14대 국회는 시작부터 뼈격거렸다. 법정 시한을 넘긴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둘러싸고 대립상을 보인 여야는 개원협상에서부터 격돌, 6월29일 가까스로 개

## 설문 - 14대 국회의원의 중간성적 평가

① 현재까지의 활동으로 보아 14대국회에 대해 느끼시는 점은 어떤 것입니까?

- 가. 역대국회 중 어떤 국회보다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국회다.
- 나. 역대 국회와 별다른 차이를 찾을 수 없다.
- 다. 의정활동 수준이 비교적 낮은 국회라 할 수 있다.
- 라. 대단히 수준이 낮은 국회라고 생각한다.

② 14대 국회의 가장 큰 특징으로 생각되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 가. 활발한 입법활동
- 나. 정부견제활동
- 다. 정책대안 제시
- 라. 윤리의식 향상

③ 14대국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 가. 여권의 당리당략에 좌우되고 있다.
- 나. 지역구와 국회의원 자신의 이해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 다. 문민시대에 대한 비전이 없다.
- 라. 국회법과 국회운영에 문제가 많다.

④ 재산공개와 관련, 파문을 겪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재산상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 가. 예상보다 많다.
- 나. 적당한 수준이다.
- 다. 예상보다 적다.
- 라. 모르겠다.

⑤ 14대 국회의원 중 의정활동이 누구보다도 활발하다고 생각되는 의원을 5명만 적어 주십시오.

⑥ 14대 국회의원 중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보여 앞으로 훌륭한 정치가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되는 의원을 5명만 적어 주십시오.

⑦ 14대 국회의원 중 부정적 인상을 주는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을 5명만 적어 주십시오.  
(예: 비논리적, 인신공격적, 무책임한, 무지스런 발언자 등)

원은 했으나 의장단(의장 朴濤圭, 부의장 黃路周 許京萬)만 선출하고 휴회, 30일의 첫 회기를 헛되이 보냈다.

이어 지자제법 개정안(자치단체장선거 95년 실시를 규정함)을 단독처리하려는 민자당이 국회 단독소집을 결정, 8월1일 개회는 했으나 파행은 계속됐고, 9월14일 개최된 정기국회도 대통령선거 일정에 밀려 법정회기의 절반인 50일도 채우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10월 초에야 겨우 원 구성을 마쳤지만,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본연의 업무에 열중할 수

없었다.

금년 들어서도 국회는 金泳三大통령의 강한 개혁 드라이브에 밀려 허둥거렸다. 개혁의 제도화, 정부정책에 대한 견제나 대안제시는 엄두도 못내고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는 모습을 보여줬다. 더욱이 사정 및 재산공개과문으로 입법부의 수장인 전·현직 국회의장이 의원직까지 던져야 하는 미증유의 사태를 겪기도 했다.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시대적 요구로 불어닥친 개혁바람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결국 대통령의 「1인독주」를 방

● 14대 국회의원 중 의원 상호간에 가장 신뢰받고 있다고 여겨지는 국회의원을 5명만 적어 주십시오.

●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의원의 필요조건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순서대로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원의 정치적 식견 나. 정치자금  
다. 정당의 지원 라. 지역구활동

● 14대 국회의원 중 국회의원으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구비한 사람이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가. 약 90% 이상 나. 약 60~70% 이상 다. 약 50% 정도  
라. 약 30% 정도 마. 30% 미만

● 14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면서 느끼신 점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가. 정당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국회의원의 수준이 높아야 한다.  
다. 국회법이 개정되고 국회의 운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라. 일반국민의 국회의원에 대한 관심과 감시가 있어야 한다.  
마. 정치자금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 14대 국회의원의 세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 크게 증액해야 한다. 나. 조금 증액해야 한다.  
다.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라. 오히려 감소시켜야 한다.

● 14대 국회의 의정활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세력은 다음 중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 행정부 나. 당 지도부 다. 지역구민  
라. 각종 사회단체 마. 언론기관

● 14대 국회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원내 정당활동을 했다고 여겨지는 정당은 어느 정당입니까?

가. 민자당 나. 민주당 다. 국민당 라. 신정당 마. 새한당 바. 무소속



姜三龍의원



姜在涉의원



姜昌成의원



金榮權의원

관하는 허약한 국회라는 평가만 자초했다.

윤곡사업 12·12사태 평화의 댐문제 등에 대한 국정조사도 나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못미쳤다는 게 중론이고, 정기 국회의 국정감사 역시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욱이 과거청산을 둘러싸고 1주일을 공전하는 등 구태를 재연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국회에 대한 평가가 높을 수 없다. 전체응답자의 66·7% (48명)가 현재까지의 14대 국회는 역대 국회와 별다른 차이를 느낄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의정활동 수준이 비교적 낮다(6.9%)와 대단히 낮다(1.4%)란 평가도 8.3%에 이른다. 반면 4분의 1의 기자들(18명, 25.0%)은 14대국회가 역대 국회중 어느 국회보다 생산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했다.

이 수치를 본지가 지난 91년 말에 실시한 설문조사(92년 1월호 「13대 국회의원 성적표」)와 비교해보면, 14대 국회에 대한 평가가 13대 국회보다는 호의적이란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같은 질

문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12.9%에 불과했고, 부정적 평가는 38.6%에 달했었다. 48.6%가 역대 국회와 별로 다를 게 없는 그저 그런 국회라고 응답했는데, 부정적 응답이 줄고 긍정적 평가가 높아졌음이 드러난다.

그러나 3분의 2의 기자들이 특별한 점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타 부문의 발전에 비해 정치는 여전히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고, 이 점이 국민들의 눈에 부정적으로 비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정치부기자들에게 14대 국회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특징이 무엇인가를 물었다. 절반에 가까운 기자들이 정책대안 제시(33명, 45.8%)를 꼽았고, 국회의 기본임무인 입법활동과 정부견제 활동은 각각 6.9%, 2.8%만이 특징으로 지적했다. 이 점은 앞서 지적한 대로 정부의 강한 개혁드라이브에 밀린 14대 국회의 모습을 드러내주는 하나의 지표라 할 수 있다.

일부 응답자는 정책대안 제시도 기대 수준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국회에 새바



金興烈의원



金元基의원



金元晸의원



金元雄의원

람을 붙여넣은 일부 의원들의 노력 때문에 보다 진지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의 일단이 엿보였지만, 적극적인 대안제시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숫자는 적지만 2명의 응답자가 설문문의 문안 외에 「무력감, 무기력」이라는 항목을 스스로 써넣기도 했다.

### 의원들 재산, 예상보다 많다

특기할 것은 응답자의 41.7%(30명)가 윤리의식 향상을 특징으로 꼽았다는 점이다. 사정과 재산공개과문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대두된 것인데, 이 윤리의식도 국회 스스로의 결의나 운동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강압적」 드라이브에 수동적으로 대응한 한계를 가진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출발이야 어쨌건 국회의원들의 재산이 처음으로 공개된 것은 대단한 변화로 인정되고 있다. 의원들의 재산공개는 이제까지 국민의 눈쌀을 찌푸리게 했던 선거과정에서의 불법 타락양상은 물론, 부정직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인사들의

정치권 진입을 차단시키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응답자의 75.0%(54명)가 국회의원들의 재산이 「예상보다 많다」고 대답한 것이 눈에 띈다. 지난 9월 7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개된 입법 행정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등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상태를 보면 이러한 응답의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총 1천1백67명의 신고대상자 가운데 상위 1백인의 「자산가」중 의원이 64명이나 끼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1위에서 15위까지가 모두 국회의원이라는 기록도 세웠는데, 특기할 것은 「의정활동이 뛰어나거나」 「장래가 기대되는 의원」 혹은 「의원 상호간에 신뢰를 주는 의원」들에 이들 자산가들이 끼여있지 않다는 점이다.

의원들의 1인당 평균재산은 26억1천만원으로 재산공개 공직자 전체평균인 14억2천만원의 배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냈다. 특히 민주당소속 의원들의 평균 재산은 32억5천만원으로 야당의 12억6천만원, 행정부의 8억6천만원, 사법부



朴明煥의원



朴秉武의원



孫承完의원



申顯彦의원

의 11억9천만원에 비교됐다.

의원들의 재산상태에 대해 「적당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기자는 9.7%, 「예상보다 적다」가 12.5%의 분포를 보였다. 모르겠다고 대답한 사람은 2명.

돈문제와 관련, 현행 세비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응답은 보유재산에 대한 응답과 일견 상치되는 듯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즉 현행 세비에 비해 크게 증액해야 한다(30.6%)나 조금 증액해야 한다(44.4%) 등 75.0%의 기자들이 세비를 올려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기 때문이다. 현행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22.2%, 세비를 줄여야 된다는 의견은 단 1명이었다(1명은 무응답).

설문에 옹한 한 기자는 『의원들의 재산액수가 많다는 대답은 입법부 평균, 혹은 상위재산가들의 어마어마한 재산규모에 대한 대답이고, 돈 없는 신진세력들의 원만한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는 현행 세비가 모자란다는 의미』라고 해석한다.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정치자금에 필요한데, 후원회 등을 통한

자금유입도 쉽지 않으니 국가가 일정한 형태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것.

### 「운동권출신」악진 돌보이는 의정활동

다음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물었다. 의원의 정치적 식견, 정치자금, 정당의 지원, 지역구활동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표시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응답자의 95.8%인 69명이 「의원의 정치적 식견」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순서를 매기지 않고, 한개의 문항에만 응답한 사람들도 모두 이 항목을 꼽았다. 정치자금이 제일 중요하다는 의견은 4.2%(3명)에 불과했고, 정당의 지원이나 지역구활동을 제일 중요하다고 지적인 응답자는 한사람도 없었다. 두번째로 중요한 조건으로 지적된 사항은 역시 정치자금(31.9%)이었고, 그 뒤를 정당의 지원(29.1%)이 이었다. 지역구활동이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지적인 응답자는 16.6%.

의원들의 식견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李寬源의원



李顯元의원



李海源의원



李顯元의원

보는 기자들의 눈에 14대 국회의 구성원들은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 국회의원들의 능력과 품위를 구비한 사람이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물었다. 절반 정도로 보는 응답이 50%였다. 좀더 자세히 보면 90% 이상이라고 보는 기자들은 한명도 없었고, 60~70%가 15.3%, 50% 정도가 34.7%, 30% 정도로 본다는 의견도 31.9%, 30% 미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18.1%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수치를 기반으로 기자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의원 개개인에 대한 평가를 물었다. 질문은 4개의 항목, 즉 14대 국회의원중 「의정활동이 누구보다도 활발하다고 생각되는 의원」,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보여 앞으로 훌륭한 정치가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되는 의원」, 「의원 상호간에 가장 신뢰받고 있다고 여겨지는 의원」과 「부정적 인상(예: 비논리적, 인신공격적, 무책임한, 무지스런 발언자 등)을 주는 의정활동을 한 의원」을 5명씩 적어 달라고 요청했다.

기자들의 의원 개개인에 대한 평가는 공식·비공식의 취재활동 과정을 통한 것이나, 기자 개인의 취향도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집계결과를 보면 의원 개개인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0위까지의 상위그룹의 경우가 그러한데, 의원 개개인에 대한 평가가 대체로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치부기자 72명이 의정활동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의 집계결과는 다음과 같다(10위까지의 득표).

- ①李海源(41·민주·서울 관악을·34표)
- ②李顯元(43·민주·경기 안양을·32표)
- ③金元吉(51·민주·서울 도봉을·27표)
- ④金元雄(49·민주·대전 대덕·22표)
- ⑤姜昌成(65·민주·전국구·16표)
- ⑥林福鎮(50·민주·광주 서울·14표)
- ⑦申溪輪(39·민주·서울 성북을·14표)
- ⑧朴錫武(50·민주·전남 무안·13표)
- ⑨朴明煥(55·민자·서울 마포갑·12표)
- ⑩孫鶴圭(47·민자·경기 광명·11표)

집계결과는 「13대 의원성적표」에서도 1위를 한 재선의 이해찬의원이 선두



金顯익의원



金大範의원



金顯익의원



金顯익의원

를 지켰고, 조선의 이석현의원이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4월 보궐선거로 등원한 지 7개월밖에 안된 손학규 의원의 10절 등장도 눈여겨볼 대목으로 해석된다. 여야를 불문하고 40대 이하의 운동권출신들이 4명이나 상위에 랭크됐는데, 이들이 제도권에 들어와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국회에 진출하기 전에 민주화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인사들이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실적도 높게 평가받는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물론 이러한 분석에 반론도 있다. 기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가 정치적 분석보다 성향분석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구시대타과를 회망하는 기자들의 선입견이 연령 등 비슷한 요소가 많은 이들 개혁세력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한 기자는 그 예로 『현재 국회스케치기사는 당직자들의 얘기와 깨끗한 정치주장자들의 발언 일색이다. 중간층의 얘기가 없다』면서, 젊은 의원들의 홍보전략도 젊은 기자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것 같

다고 분석했다.

어쨌든 10인의 면면을 살펴보면, 연구하는 의원상을 심고 있는 운동권출신과 함께 강창성 임복진의원(국방·외교전문가) 김원웅의원(야당에선 드문 재계출신) 등은 자신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이 응답자들의 호감을 산 것으로 보인다. 김원길 박명환 박석무의원도 「매우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으로 소문나 있다.

한가지 지적할 것은 10명중 이해찬 박석무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초선이라는 점. 13대국회의원들 중 같은 항목에서 상위에 올랐던 현역 6명(이해찬 이철 박석무 조세형 金泳鎭 김원기) 중 2명만이 다시 평가를 받았다.

또 여당의원들이 야당의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은 구조적 문제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정부당인 여당의 속성은 물론, 국회에서의 공방 이전에 당·정협의 등의 과정을 거치는 여당의원들은 야당의원에 비해 공격도가 떨어질 것은 당연한 일이다. 최근 여·야의 구분 없이 정부를



이명석의원



김명호의원



金光玉의원



김조명의의원

절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도 드러났다. 이런 조건들을 감안한다 해도 상위랭크자중 여당의원이 2명, 그것도 9, 10위에 랭크돼 있다는 점은 여당원들의 분발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것 같다.

그리고 특정분야의 전문가에게 국회진출의 기회를 주는 직능대표제의 성격을 가지는 전국구의원중 상위에 랭크돼 있는 의원이 강창성의원 한사람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전국구의원들의 의정활동 기여도를 짐작케 해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설문조사의 집계결과를 이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0표 : 제정구(민주)
- ◇9표 : 김영진(민주) 박상천(민주)
- ◇8표 : 박계동(민주) 박종용(민자)
- ◇5표 : 강삼재(민자) 강수립(민주)
- 김형오(민자) 나병선(민주) 임채정(민주) 장준익(민주) 한화갑(민주)
- ◇4표 : 강경식(민자) 김병오(민주)
- 박범진(민자) 송두호(민자) 정균환

(민주)

- ◇3표 : 김중위(민자) 박주천(민자) 이부영(민주)
- ◇2표 : 강재섭(민자) 김영일(민자) 김충조(민주) 나오연(민자) 박지원(민주) 박헌기(민자) 백남치(민자) 송천영(민자) 원혜영(민주) 유인태(민주) 이규택(민주) 이운수(민주) 정상용(민주)

2표 이상을 얻은 의원총수는 44명으로 2백99명 전체 의원의 14.7%. 한편 1표를 얻은 의원은 24명으로 집계돼 출입기자들에 의해 인상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꼽힌 총 의원수는 68명, 전체의 22.7%. 1표를 얻은 의원은 김영광 김영구 김병일 김운환 김인영 김해석 노승우 문정수 문희상 박광태 박일 박태영 서상목 신기하 신순범 이견영 이호정 이환의 정대철 조세형 조순형 조일현 차수명 최영한의원.

## 장래성 있는 인물, 李富榮 꼽아

두번째로 물은 게 의원들의 장래성.

첫번째 질문이 현재까지의 「실적」을 물은 것이라면, 이 질문은 「미래의 가능성」을 물은 것. 결과는 이부영의원의 압도적 선두로 드러났다. 10위까지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①李富榮(51·민주·서울 강동갑·51표)
- ②李海瓚(41·민주·서울 관악을·26표)
- ③孫鶴圭(47·민자·경기 광명·19표)
- ④姜在涉(46·민자·대구 서울·17표)
- ⑤諸廷圻(49·민주·경기 시흥 광명·15표)
- ⑥姜三載(41·민자·마산 회원·13표)
- ⑥金德龍(52·민자·서울 서초을·13표)
- ⑧李協(52·민주·전북 이리·9표)
- ⑨鄭大哲(49·민주·서울 중·8표)
- ⑨韓和甲(56·민주·전남 신안·8표)

장래성에서는 민자당의원이 4명이나 끼었는데, 김덕용 정무1장관을 제외하면 모두 40대. 의정활동 실적에서는 야당의원에 비해서 돋보이지 않았으나 정치가로서의 가능성은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주당내 개혁파의 리더로서 새로운 정치를 추진하는 이부영의원이 의정활동 실적에서는 단 3표에 그친 것도 눈에 띄고, 의정활동에 관한 설문에서 한표도 얻지 못한 김덕용의원과 1표를 얻은 정대철의원이 장래성에서는 각각 6위와 9위를 마크한 것도 이색적이다.

고양있는 여성의 벗! 단편한 가정의 곁에서

여성동아

이부영의원의 경우 개혁세력의 대명사로 알려진 그가 현실정치의 적용에 성공했고, 원내 개혁세력의 한 중심이라는 점이 무더기표의 원인으로 들어진다. 이해찬 손학규 제정구 이희의원은 역시 개혁세력으로서의 가능성이 높이 평가된 것 같고, 4위를 마크한 강재섭 민자당대변인은 젊은 나이로 기자들과 의기가 투합하는 데다, 두뇌와 재기가 뛰어나고 YS계로의 변신 성공이 미래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게 된 원인으로 꼽힌다.

김덕용 정무제1장관과 정대철의원은 각각 여·야의 새세대주자로 꼽히는 점이, 강삼재의원온 민주계의 실세로서 당의 개혁작업에 깊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과 나이 때문에 미래를 예약할 것으로 본 것 같다. 한화갑의원은 「金大中 공백」의 동교동계 차기 대표로 지목되는 점이 득표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의원은 스타일마저 김대중씨와 비슷해져 김대중씨에 대한 향수를 달래준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10위 이하의 집계결과는 다음과 같다.

- ◇7표: 신계륜(민주) 이철(민주) 홍사덕(민주)
- ◇6표: 김원길(민주) 서상목(민자)
- ◇5표: 박석무(민주) 조세형(민주)
- ◇4표: 김원기(민주) 백남치(민자) 유준상(민주) 이기택(민주) 이석현(민주) 한광옥(민주)
- ◇3표: 김윤환(민자) 김형오(민자) 문희상(민주) 박계동(민주) 박상천

(민주) 박종웅(민자) 박지원(민주)  
박헌기(민자) 이인제(민자)

◇2표 : 강창희(무) 김원웅(민주) 김  
영일(민자) 김중위(민자) 김충조(민  
주) 나용배(민자) 박명환(민자) 박범  
진(민자) 원혜영(민주) 임채정(민  
주) 정균환(민주) 정상웅(민주) 최재  
욱(민자)

2명 이상의 기자들에게 장래를 기대  
할만 하다고 보이는 의원들이 45명으로  
전체의원의 15%. 1표를 얻은 의원은 33  
명인데, 강수립 강인섭 김상현 김영구  
김종호 나오연 노재봉 박경수 박실 박은  
태 박정훈 박주천 박찬종 서훈 손세일  
송천영 신기하 신상우 오장섭 이길재 이  
만섭 이순재 이용삼 장석화 장재식 정몽  
준 조부영 조순형 조영장 최병열 최형우  
허경만 황락주의원들이 그들이다.

### 의원상호간 신뢰도, 중진들 높아

세번째 질문이 의원 상호간의 신뢰도.  
여기서도 이부영의원이 1위를 했는데,  
다른 항목과 달리 각 당의 중진들이 상

위에 오른 점과 표의 분산이 상대적으로  
심하다는 게 특징이다. 다음은 10위까  
지의 집계(연인원 13명).

- ①李富榮(51·민주·서울 강동갑·22표)
- ②金潤煥(61·민자·경북 군위 선산·16표)
- ③李萬燮(61·민자·전국구·11표)
- ③李協(52·민주·전북 이리·11표)
- ⑤諸廷珩(49·민주·경기 시흥 평명·10표)
- ⑥趙世衡(62·민주·서울 성동을·9표)
- ⑥金元基(56·민주·전북 정읍 정주·9표)
- ⑧姜在涉(46·민자·대구 서울·7표)
- ⑨李海瓚(41·민주·서울 관악을·6표)
- ⑨鄭大哲(49·민주·서울 중 6표)
- ⑨趙淳昇(64·민주·전남 승주·6표)
- ⑨崔炯佑(58·민자·부산 동래을·6표)
- ⑨韓光玉(52·민주·서울 관악갑·6표)

동료 의원들간에 신뢰도가 높다는 것  
은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인간관  
계가 좋고 남들로부터 존중받는다든 의  
미를 내포하고 있다. 또 토론과 타협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 五行生食으로 새生命을

사람의 모든病은 나무뿌리 역할과 똑같은 여섯臟腑의 균형이 깨진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장부의 기  
울어짐을 정확하게 診脈하여 生命력이 살아있는 六穀을 장부 虛實에 따라 먹기 좋게 處方  
하여 해당장기를 영양 치료하는 病의 根本 치유법입니다.

- |          |              |          |                |
|----------|--------------|----------|----------------|
| · 신·방정질한 | · 늘 실패하는 비만  | · 신경질 질환 | · 체질에 맞는 음식 처방 |
| · 위장·간질한 | · 만성피로 무력증   | · 골다공증   | · 음양에 맞추어하는 운동 |
| · 만성 피부병 | · 잘날지 않는 만성병 | · 당뇨병    | · 中國豫防秘法處方     |

陶巖五行生食院 지하철 3호선 대치역  
한보 미도상가 203호

문의 552-2573

10위안에 거론된 인물들의 면면이 대개 비교적 온건 합리적 노선을 걷고 있다는 평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런 면에서 1위를 한 이부영의원을 포함, 이협 제정구 이해찬의원이 상위에 랭크된 것은 「의정활동에 크게 기여했고 장래가 촉망되는」 운동권출신들이 「의원 상호간의 신뢰성」에는 뒤처진다는 일반의 상식을 뒤엎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과도한 정치적 엘리트의식이나 과격한 모습을 보여 동료의원들에게 거리감을 가지게 한다는 지적을 받는 일부 의원들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하다.

2위의 김윤환의원은 최근 같은 당 유성환의원(민주계)의 전력시비에 심기가 편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유신 이후 양지에만 있어 왔고, 최근에는 YS 세에 짓눌린 민정계의 「代父」역할이 자천타천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에 대한 의원들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기자들이 본 것은 그 스스로의 친화력도 작용했겠지만, 민정계의 「희망」도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만섭 국회의장이 3위로 떠오른 계

이재롭다. 「국회의장은 청와대 눈치 봐서는 안된다」며 「내 임기중에 절대로 날치기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의의장에 대한 의원들의 기대감이 모여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강재섭 민자당 대변인의 경우 능란한 대인관계가 크게 작용한 것 같다는 풀이다.

설문의 집계 결과는 김덕규 이한동(이상 5표), 김병오 박철원 신순범 유인태 이철 조순형 황락주(이상 4표), 강삼재 김종호 김종위 김진재 김태식 나용배 박석무 박한기 신경식 신상우 최재욱 한화갑(이상 3표), 강창성 강창희 김덕용 김병오 김영구 김원길 김원웅 김충조 박경수 박상천 박희태 백남치 손학규 오세웅 이상득 이성호 이춘구 임복진 장준익 장재식 정필근 황락주의원(이상 2표)이 랭크돼 있다. 2표 이상을 얻은 의원은 57명, 1표만을 얻은 의원은 48명.

이상 새한국에서 모두 10위 이내에 든 사람은 이해찬의원이 유일하다. 이의원은 의정활동에서 1위, 장래성에서 2위, 의원 상호간 신뢰성에서 9위를 마크했다. 한편 이부영의원의 경우 두 항목

#### 신 한국인을 위한 비씨카드

지갑부터 군살을  
빼십시오.



지갑이 무뎌야 세면이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쓰는게  
바로 현금, 현금대신 비씨카드를  
가지고 다니십시오.  
지갑은 얇게 다이어트, 꼭 써야할  
때 비씨카드, 신 한국인의 지갑은  
얇고 가볍습니다.

 비씨카드

에서 모두 1위를 했으나 의정활동부문에서 뒤처져 두 부문 상위권인사로 꼽히게 됐다. 이외에 두 군데에 랭크된 의원은 손학규(장래성·의정활동), 강재섭(이협 제정구 정대철(장래성·신뢰성)의원.

네번째 질문은 부적격 의원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었다. 1표 이상을 얻은 의원의 총수는 1백1명(2표 이상은 57명). 이중 10결의 면면을 보면, 7명이 민자당, 2명이 민주당, 그리고 국민당의원 1명이 끼어 있다. 1위는 27표의 민자당 경북출신 B의원, 2위는 충남출신 B의원(18표·민자), 민자당 전국구 Y의원(18표). 뒤를 이어 충북의 J의원(14표·민주), 경기도의 J의원(13표·국민), 경북의 K의원(12표·민자), 민자 전국구의 Y의원(9표), 경북의 K의원(8표·민자), 서울의 P의원(8표·민주) 및 대구의 J의원(7표·민자)이 망라돼 있다.

### 의원 개개인 수준 높아져야

이런 의원들이 모인 14대 국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무엇일까. 응답자들의 절반 정도인 48.6%(35명)가 「문민시대에 대한 비전이 없음」을 제일 큰 문제로 지적했다. 다음으로 국회법과 국회운영이 22.2%(16명), 당리당락에 좌우된다가 18.1%(13명), 그리고 지역구와 의원 자신의 이해에만 관심을 두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 응답자도 8명(11.1%)이 나왔다.

13대국회의 평가에서는 58.6%의 응

답자들이 당리당락에 좌우되는 정치행위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는데, 이번 설문조사에서 이 항목의 응답자가 적은 것은 14대 국회가 발전한 때문이라기 보다 문민시대에 걸맞는 국회모습에 대한 요구가 더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4대 국회의 출발에서도 그런 면이 두드러졌었고, 최근의 정기국회에서도 구태의 일단을 보였는데, 다시 당리당락을 지적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게 기자들의 의견이다.

또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면서 느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34.7%(25명)가 「의원 개개인의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29.2%(21명)가 「정당의 민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법과 국회운영의 합리화(18명, 25.0%), 국민의 국회의원에 대한 관심과 감시(6명, 8.3%), 정치자금 해결(2명, 2.8%)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기자들의 경우 국회와 국회의원의 제모습 찾기는 결국 의원과 정당의 환골탈태에서만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대국회의 의정활동에 영향을 준 세력으로는 제일 많은 응답자(32명, 44.4%)가 언론을 꼽았다. 30.6%(22명)의 응답자는 당 지도부를 지적했다, 18.1%(13명)는 행정부를 꼽았다. 많은 응답자들은 행정부에 청와대를 포함시켜 응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13대 국회에서는 54.3%의 응답자가 소속 정당의 지도부를, 27.8%가 언론을 꼽았던 것과

비교된다.

국회의원들이 언론기관에 많은 신경을 쓴다는 사실은 국민의 눈을 의식해야 하는 정치인에게는 당연한 일로 비쳐진다. 『의사당 내에서는 의원과 기자만이 왕』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이런 측면에서 연유됨을 알 수 있다.

지역구민과 각종 사회단체를 꼽은 응답자가 각각 2명(무응답 1명)뿐인 것은 우리나라 국회의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중요한 견제세력이 거의 없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의원의 개별적인 권위와 위상이 그만큼 높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현재 국회의원을 배출하고 있는 정당은 민주당 민주당 국민당 새한당 신정당이다. 14대 국회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원내활동을 했다고 여겨지는 정당은 어느 정당인가라는 질문에 72.2%(52명)가 민주당을 꼽았다. 민자당은 20.8%(15명), 그리고 무소속에 2명이 손을 들었을뿐, 국민당 신정당 새한당의 활동에 주목한 기자는 단 한사람도 없었다. 여기서도 「해당되는 정당 없음」이라는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 그곳에 동그라미를 친 응답자도 3명 나왔다.

## 기대와 우려의 가능성 공존

국회와 국회의원 개개인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의원들의 모든 원내 발언과 입법 및 사회활동, 정당 내부에서의 역할 등을 종합분석해야

한다. 그 작업에는 상당한 수준의 전문 지식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또 관계자들의 평가도 덧붙여져야 보다 정확한 성적표를 작성할 수 있다.

이러한 본격작업에 앞서 국회와 정당, 의원들을 취재하는 기자들의 판단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것도 무시하지 못할 중요성을 가진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정치 현장에 밀착해 취재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와 의원들의 평가에 적임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설문조사의 의의는 바로 이런 점에 있다고 보여진다.

어쨌건 14대 국회의 평가는 96년의 15대 총선을 앞둔 95년 말경에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평점은 중간평가의 성격을 가진다. 현재까지의 결과로 보면 기대와 실망의 두가지 가능성이 모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국회와 국회의원들에게 문제가 있음도 분명하지만, 새롭게 태어나려는 노력들이 있고, 자질과 능력 활동면에서 우수한 선량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14대 국회의 미래에 기대를 걸어도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그리고 국회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는 당연한 논리와 함께 앞으로 더욱 발전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음도 14대 국회의 앞날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해준다. □

과학사대의  
친절한 길잡이 **과학동아**

『月刊中央』의 설문조사

# 女流들이 뽑은 韓國 정치인 베스트 5

①李富榮 ②金泳三 ③李 哲·李海瓚 ⑤金大中



커리어우먼은 어떤 스타일의 정치인을 좋아하는가.  
여성표를 움직이지 못하면 敗亡하는 新시대에  
女心を 붙잡기 위한 戰略의 포인트를 추적한다.

여성표를 얻지 못하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 지금 韓國유권자의 남녀비율은 대충 49 대 51의 逆轉상황. 이제야말로 對 여성전략이 확실치 않으면 국회의원도 될 수도 없고, 나아가 정권의 획득도 無望하

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어떤 정치인을, 왜 좋아할까.

『月刊中央』 편집부는 각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여류들에게 「韓國 정치인 베스트 5」를 묻는 조사를 실시하여 좋아하는 순

서대로 정치가를 5인 이내로 가려내고 각 기 선택이유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 설문조사는 모두 1백54명에게 의뢰됐고 회답자는 38명이었다.

그 결과를 집계하는 방식은 1위로 꼽힌 경우 5점을 부여하고, 차례로 1점씩을 빼 5위로 꼽힌 경우 1점을 부여하였으며, 등위 없이 1명만 지명했을 경우 5점을 주었다. 또 수명을 꼽았을 경우 평균점을 주는 방법을 택했다(예를 들어 3명만 거명했을 경우 3명 모두에게 평균점 4점부여 이하 도착 순서에 따랐음).

그래서 거명된 56명 중에서 6점 이상을 부여받은 정치가 19명을 등위별로 밝혔다.

#### ●女流들이 선정한 정치인 베스트 19●

|     |     |     |
|-----|-----|-----|
| 1위  | 李富榮 | 80점 |
| 2위  | 金泳三 | 43점 |
| 3위  | 李 哲 | 42점 |
|     | 李海瓚 | 42점 |
| 5위  | 金大中 | 41점 |
| 6위  | 朴燦鍾 | 37점 |
| 7위  | 諸廷圻 | 33점 |
| 8위  | 盧武鉉 | 26점 |
| 9위  | 朴英淑 | 25점 |
| 10위 | 李愚貞 | 23점 |
| 11위 | 崔炯佑 | 11점 |
| 12위 | 金權泰 | 9점  |
|     | 金潤煥 | 9점  |
| 14위 | 金德龍 | 8점  |
|     | 趙舜衡 | 8점  |
| 16위 | 朴煥太 | 7점  |
| 17위 | 金元基 | 6점  |
|     | 徐相豫 | 6점  |
|     | 張永達 | 6점  |

## 金 初 蕙

〈시인〉



①이해찬 깨끗한 정치인·공부하는 정치인.

②이부영 청렴·후덕한 인물.

③이인제 바른 식견과 실천력.

④신순범 성실하고 끈기있는 정치인.

⑤이 철 진실하고 진지한 정치인.

## 이 나 미

〈신경정신과 의사〉



① ②이해찬·박찬중 등 비교적 청렴하고도 열심히 공부하는 의원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단 그들의 理想이 현실과 어떻게 만나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두고봐야 할 것 같다. 특히 박찬중 의원의 경우, 자신의 능력과 높은 의지도 중요하지만 人才를 끌어모으는 경륜도 중요하다는 걸 말해주고 싶다. 독불장군식의 스타플레이보다는 적절한 인물들을 발굴해 그들을 키워주는 능력이 정치인으로서 훨씬 더 중요한 德目이기 때문이다.

③김덕룡 앞으로 많은 일을 하길 바란다. 全北 출신으로 30년 가까이 변절없이 경상도 출신인 김영삼 대통령의 그림자

같은 존재로 방패막이가 되길 망설이지 않았다는 점을 높이 사기 때문이다. 지역 감정을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을 그는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다. 그러나 그가 겪을 거부감이나 질서 동도 만만치 않을 터이며, 항상 권력의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매사를 급진적으로 생각하는 데 익숙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 經濟運用의 경험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개혁드라이브가 어느 정도 나라살림을 현실적으로 살려낼 수 있느냐에 대해선 미지수일 듯싶다. 좀 더 많은 공부, 넓은 만남과 더불어 끊임없는 자기 혁신의 3박자가 모두 소중하다는 걸 말해주고 싶다.

④ ⑤이우정·권영자 이들은 여성이어서 기대를 하고 있다. 프로정치인이자기보다는 아직 아마추어 같다는 느낌이 없지 않지만 그 점이 바로 그들만이 가지는 장점이 될 수 있다. 다음 세기에는 여성들의 정치적 욕구가 폭발할 것이며 그 때를 대비해 여성정치인들을 키워야 할 것으로 본다. 과거 주변적 성격을 탈피하지 못한 채 부패한 권력에 타협했던 舊時代 여성 정치인들에 비해 확고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 그들이 여성계의 중심인물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 李 鮮

(소설가)

기실 정치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것은 예술인이나 연예인을 좋아하는 것처럼 개인의 성격이나 기호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닌 데다가, 여태껏 제

대로 신명나는 정치판을 한번도 보지 못하고 번번이 배신당하고 마는 씁쓸한 기억만 갖고 있으니, 그래도 민초들은 그들을 야멸치게 외면해버리지 못한다. 언젠가는 살맛나는 세상을 살게 되리라는 소망을 버릴 수 없으니까. 내가 인색한 이유로나마 좋아하는 정치인을 말할 수 있는 까닭은 바로 그러하다.

꽤 오랜 세월 동안 나는 두 김씨에 대해 무한한 애정을 베풀었다. 그들 앞에 그물처럼 펼쳐놓은 스펙트럼 사이로 난수표를 꼴듯이 그들의 말 한마디를 통해 암담한 우리의 장래를 꿈꾸어보기도 했었다. 그러나 지난 대선 후, 나는 두 김씨에 대한 애정을 존경과 신뢰로 격상시켰다. 그러니 이제 두 김씨는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① ②김윤환·김원기 가장 정치인다워서 좋다. 넘어갈 듯 곳곳이 서 있고, 꼼짝하지 않은 듯하면서도 슬그머니 넘어가주는 묘미를 보여주는 점에서 가장 정치인다워 좋다.

③이철 묘수를 아직 보여주지는 않지만 치밀한 분석력과 어두운 세월을 대한 오기로 견디어냈다.

④이부영 그에게서는 따뜻하고 건강한 정치를 기대할 수 있어서 좋다.

⑤제정구 그에게서는 아직도 정치인보다는 운동가라는 냄새가 풍긴다는 점이 아쉽다. 이제 정치인은 모름지기 가장 전문적인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니까.

## 박 은 옥

〈가수〉

나는 순위 매기기가 마땅치 않다.

이철·원혜영·이부영·박계동·노무현·이길재·임채정 등. 이들은 사회민주화를 위해 고난을 무릅쓰고 애써왔고 의원이 되어서도 사는 모습이 일반 대중들과도 동떨어지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이들은 대체로 깨끗한 정치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기도 하지만 슬로건대로 사는 것 같아서 좋다. 그것은 재산공개과정에서도 확실하게 드러났다. 또한 이들이 젊다는 것 때문에 희망을 품게 한다.

또한 열심히 의회활동을 하기 때문에 신뢰가 간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공부라고 여겨지는 현장 검증활동도 열심히 것으로 보여서 미덥다. 이들을 뽑은 것은 야당에 소속해 있음으로 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여당의원이라도 이러한 나름의 기준에 부합한다면 가능한 것이다.

## 구 회 숙

〈환경연합 지도위원〉

정치, 정치 하면 왜 그리 불신이 앞서는지... 나만의 생각은 아니겠지만 태어나 지금까지 혼란과 탄압 속에서 실망만 해온 탓인지 부정적인 느낌이 앞서고 정직하고 곧은 심성을 가진 사람은 정치마당에서 회생양이 될 것만 같아 마냥 걱정되고 불안하다.

그러나 정치만큼 비중이 큰 것 또한 없기에 재발 뜻있고 소신있는 이들의 참여

와 성장을 기대해본다.

평소 별로 관심있게 쫓아보지는 않았지만 굳이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①박영숙 전 민주당 의원은 여성으로서 모든 조건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여성문제 등에 적극적이고 열심이다.

②황산성 환경처장관은 죽대있어 뭔가 당차게 현문 할 것 같다.

③이부영 그는 온화하고 포용력 있어 보인다.

④제정구 그에게 점수를 주고 싶다. 빈민운동가로 늘 경이롭게 보아오고 있다.

⑤이희창 감사원장은 정치가라기보다 이 시대의 양심처럼 굳건하고 대쪽 같은 점에서 모범이 되므로 뽑고 싶다. 공관이 호화롭다고 입주를 거절한다는 그 한마디가 백마디 공약보다 더 신선하게 살맛을 느끼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 印 炳 善

〈집·풀 생활사박물관장·시인〉



①김영삼 호랑이굴에 들어가서 호랑이 먹사를 틀어쥐고 나온 그의 행동은 확실히 탁월한 정치적 술수다. 한때 그의 행보에 의심쩍은 눈초리를 보낸 적도 없지만 이제는 절대 신뢰한다. 같은 맥락에서 좀 미진한 듯한, 답답한 듯한 현재의 개혁도 그의 탄력 있는 술수의 한 방법이라 믿고 그곳이 기다려야 하리라 본다.

②김대중 평생에 걸친 백절불굴의 의지에 늘 경의를 표한다. 그 의지는 단순한 권력예의 의지가 아니라 민족에 대한 사랑의 의지일 것이다. 따라서 다음 大選에서도 민족의 대다수가 진정으로 원한다면, 또 그것이 민족을 위하는 일이라면 「정치 은퇴선언」 따위 상관없이 감수하는 용단을 보여야 할 것이다.

③백기완 그는 이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반항이며 선동가다. 물은 고즈너기 고여 있으면 썩게 마련이다. 가끔씩 휘저어 바람을 일으키는 그의 존재는 또다른 의미에서 정치적이다. 민주주의가 참으로 성숙하려면 이런 정치가도 포용할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할 것이다.

④박석무 언제 보아도 지게작대기를 막 버터 세우고 나온 듯한 얼굴이 친근감을 준다. 그 투박한 농부의 풍모에 깊디깊은 학자적 내용까지 겸비했으니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다. 그는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도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⑤이부영 지혜와 정의감과 용의를 고루 갖춘 신뢰할 만한 정치가다. 웬지 이부영에게는 우리 민족의 미래를 맡겨도 어김없을 것 같은 기대를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다.

## 정진화

〈전교조 부대변인〉

①조순형 교육위원회 의장으로서 합리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상임위 활동을 이끌고 있다. 치밀한 준비를 하여 여·야를

막론하고 교육위 소속의원들이 교육을 쇄신하는 방향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유도한다. 그동안 끈질기게 교육부를 설득하여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문제 등을 풀게 하는 데 공헌하는 등 눈에 띄지 않게 일하는 모습이 소신있고 믿음직스럽다.

②이우정 여성단체에서 오래 활동하면서 여성운동을 앞장서 이끌어온 따뜻한 선배며 언니 같은 인상으로 지금도 많은 여성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놓인 현실과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여성지도자 육성과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위한 여건마련에 더 많은 힘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③이해찬 그동안에도 맹렬하게 의정활동을 해왔고 이번 국감에서도 환경·보사 부분에서 두드러지게 열심히 활동했다. 민주화운동을 해온 경력으로 차분하고 날카롭게 구체적으로 문제를 지적하며 활발한 활동을 벌여서 신뢰를 준다. 계속 꾸준하게 정책대안을 내놓는 일에 힘써 정책야당의 위상을 세우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

④신계륜 학생운동과 노동현장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노동자들과 만나 그들의 문제를 생생히 느끼고 함께 하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새로운 활기를 정치에 불어넣은 신선한 정치인이다. 지금의 패기와 정열로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훌륭한 정치인으로 계속 성장하여주었으면 한다.

⑤이인제 노동부 장관은 노동부가 전통적으로 사용자편이라는 인식을 어느 정

도 경감시키고 나름대로 중립적으로 노사 간의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 점수를 주고 싶다. 앞으로 흔들리거나 후퇴하지 않고 절대 다수인 노동자편에 서서 올바른 노동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기대한다

## 김 인 순

〈화가〉



①이우정 우리 여성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수십년간 여성운동을 해온 경험을 현실 속에서 정책으로 실현해내기 위해 제도권 정치에 뛰어들어 노력하는 것이 존경할 만하다.

②김대중 역대 정권들의 집중적인 폭력적·이데올로기적 탄압을 당하면서도 민족적·민주적인 정치이념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권력에 도전한 정치사상을 갖춘 현실 정치가다운 자세가 존경할 만하다. 또 물러날 때 물러날 줄 알고, 직접적인 권력획득보다 더 큰 정치행위를 통해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것도 바람직하다.

③김근태 험난한 재야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지나간 그의 행적이 존경할 만하다. 가장 참예한 시기에는 최전선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어려운 현재에도 분열된 재야운동의 통합을 위해 애쓰는 것이 존경할 만하다.

④노무현 5공비리 청문회에서 보여주

었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현대노동자 테러사건을 들이대며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정주영을 구석으로 몰아넣어 통쾌하게 꾸짖던 그 장면이란...

⑤이부영 야당의 체질개선을 주도할 만한 인물로 기대된다. 물론 순탄하게 개혁모임이 새 길을 가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현재의 야당 내에서 기대해볼 만한 인물이다.

## 강 봉 주

〈약사〉

①이부영 재야 출신이지만 부드러운 이미지를 갖고 있어 새 정치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생각된다. 예리한 논리를 좀더 보강하면 좋을 듯하다.

②제정규 지나칠 정도로 강직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 그러한 강직함이 새 정치를 위한 소금의 역할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③손학규 재야 시절에는 어느 누구보다 부드러운 「덕장」의 품격을 지켰다고 한다. 비록 여당에 몸담았지만 정치·문화 개선의 건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④유인태 누구보다도 합리적이고 빠른 두뇌를 갖고 있다고 한다. 듣기에 앞으로 정치권의 제갈량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⑤김원기 이른바 구 정치인이지만 합리적이어서 신·구세대를 이어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자신의 보수성을 하나의 무기로 삼아 젊은 정치인들의 바람벽이 된다면 좋을 듯하다.

## 김혜린

〈만화가〉

일개 만화가가 정치에 대해 대체 뭘 알까마는 얼핏 생각나는 이름들(무순위).

① 박찬중 어딘지 모르게 지방질 결핍의 유랑극단 단장(?) 같은 느낌. 지난 대선 때 좋은 인상을 받았다. 자유민주주의자.

② 노무현 날카롭다. 젊다. 질기다. 독하다. 그런데... 지금은 무얼하고 있을까?

③ 김영삼 40년 이상 정치계에 몸담고서 그런 표정을 유지하기란 쉬운 게 아닐 것이다(본래 그렇든 필요에 의해서든). 현재 고군분투하는 모습도 보기가 그럭저럭 괜찮다.

④ 김대중 자신은 정치를 떠났다 했지만 어쨌든...!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을 통틀어 그는 위대하다 할 만한 분.

⑤ 김문환 유연함과 오버센스 하지 않는 지구력. 그런 걸 몇번 느꼈다. 현재 활동과 입지가 어떻게 간에, 우리 정치판에서 그것은 드물고 아쉬운 자질이 아닐까?

## 신형원

〈가수〉



먼저 김대중씨. 그를 지지하느냐는 의중을 밝히게 되었을 때 거부하는 입장이어서 껄끄러웠다. 그러나 여러 차례 만나게 되면서 전혀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해박하며, 높은 식견에 탄복

했다. 그리고 한편 매우 천진하여서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훌륭한 자질이 쓰이지 못해 안타깝다는 생각이다.

이부영·이해찬·이철·노무현·원혜영 의원을 높이 평가한다. 이부영 의원은 그동안 해온 일로 높이 평가한다. 이해찬 의원은 「곧다」는 한마디로 평가할 수 있겠다.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으려 노력하는 점에 끌렸다. 후원회 운영이 적자임에도 세세하게 밝히는 솔직함과 소신있음을 보았으며 몸을 아끼지 않는 헌신에 좋은 평가를 주고 싶다. 노무현 의원은 고민하면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 호감이 간다. 원혜영 의원도 믿을 만하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국회의원은 아니어도 김만석·김근태 씨도 높이 평가된다. 김민석씨와 대화를 여러 차례 가졌는데 참 괜찮은 분이구나 여겼다. 김근태씨는 깊이 공감하게 된 분이다. 그는 진정으로 몸을 아끼지 않고 노력해왔다.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 이혜경

〈여성문화예술기획대표〉

① 박영숙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 발로 뛰는 정치인. 환경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 누구보다 사실 없이 정치를 해나갈 것을 믿는다.

② 이해찬 청문회 때 치밀하고 성실한 조사·연구를 하는 정치인의 면모를 보여주었고, 불외와 전혀 타협치 않을 것이라는 느낌이다. 누구보다 지역구 활동을 모범적으로 한다고 알고 있으며 대쪽 같은

성품에 믿음이 간다.

③조순형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철저한 조사·연구와 함께 큰일은 물론 잘 드러나 보이지 않는 일까지도 성실히 한다는 보도로 신뢰가 간다.

④제정구 서민들과 함께 하는 깨끗한 정치인, 지역구 활동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⑤이부영 합리적 정치인, 오랜 재야활동 속에서 닦은 저력에 믿음이 간다.

## 김 영 나

〈덕성여대 교수·미술사학〉

- ①이부영.
- ②이 철.
- ③강영훈.
- ④김영삼.
- ⑤김영정.

## 박 은 희

〈자유기고가〉

①노무현 장내(국회)·장외(노동현장)를 막론하고 소신과 의지를 펴내는 표리일치형인 독심과 정치인.

②이부영 민주화를 위해 애쓴 재야시절의 투쟁경력과 정치인으로써 갖추어야 할 참신한 정치감각과 세련된 매너·화술이 잘 조화된 지성과 정치인.

③박상천 대변인 시절에 보여준 순발력 있는 문장력과 정치 현안에 관한 설득력 있는 논리전개로 대중적 흡인력을 지닌 선동과 정치인.

④박찬중 최근 몇년간 보여준 정치적 소신과 심지로 철새파·동지파 정치인들에 좋은 본보기를 보여준 독야청청과 정치인.

⑤김원웅 여당에서 변신, 참신한 정치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돋보임. 최근 사학재단비리에 관한 방대한 분량의 백서를 발간하는 등 변화된 시대에 부응하고자 애쓰는 노력과 정치인.

## 金 憲 珉

〈이화여대 교수·행정학〉

①박찬중 체제개혁 의지있고 부정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②이부영 독재정치에서 저항한 경력과 선명성.

③제정구 빈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 높은 정치인.

④이해찬 의정활동에서 나타나듯 기득권 세력에 대한 비판노력.

⑤박희태 전문성 있고, 말솜씨 논리정연하고 깔끔하다.

## 李 英 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정책학〉

①김영삼 여성장관 3명을 기용한 것이 돋보인다.

②서상목 논리정연한 사고력과 토론 때 남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와 언변이 매우 훌륭다.

③박찬중 깨끗한 마음을 가진 것 같다.

④이 철 학생운동권 출신의 경력과 선

명성.

⑤ 김상현 이슈에 대해 적극성 돋보인다. 특히 환경문제에 대해 외모 깔끔한 것도 돋보임.

## 손 현 숙

〈울주 환경운동연합 부회장〉



- ① 이해찬.
- ② 이부영.
- ③ 이 철.
- ④ 노무현.
- ⑤ 백기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정치인은 권력과 재력을 갖춘 사람이 더 많은 권력과 재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또 이를 위해 국민의 여론을 조작하는 사람들이었다.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진정한 의견을 성실하게 반영해주는 사람. 또 국민이 그렇다고 느끼는 사람이어야 한다.

위에 선정한 사람들은 정치적 영향력이 크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국민의 의견과 문제의식을 성실하게 반영하려는 사람들. 이고 또 여러 과정을 통해서 그럴 수 있는 수완을 잘 보여준 사람들이다. 우연히도 이들은 모두 권력과 재력이 만들어준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의 진정한 지지가 만들어준 정치인으로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어 보인다.

## 최 정 순

〈웅진출판 단행본 개발부장〉

- ① 박영숙 깔끔한 이미지와 여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력이 돋보인다.
- ② 김근태 민주화 투쟁경력과 포용력.
- ③ 김희선 결단력과 추진력. 특히 여성운동과 통일운동에 크게 기여했고 앞으로 도 그럴 것으로 예상돼 기대가 크다.
- ④ 장영달 온화함과 투쟁력 겸비.
- ⑤ 김정남 온건한 조정력.

## 신 지 희

〈가나아트·화가〉

- ① 제정구 도시빈민운동의 대부로서 청계천 철거부터 도시철거민과 함께 생활하면서 정치적으로 그들을 대변한다. 유일하게 한겨레민주당으로 당선된 정치가.
- ② 이부영 재야정치가로 민주당에 입당 후 「깨끗한 정치」의 지도자상으로 부각. 역량이 풍부한 인물이다.
- ③ 노무현 노동운동을 통해 현장적 감각을 지니고 이를 실제정치로 유도. 자신의 논리와 판단력을 지닌 정치가.
- ④ 서상목 여권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인물 중 한 사람. 높은 식견을 지닌 정치가.
- ⑤ 최형우 개혁의 선봉주자.

最高の 時事종합誌  
月刊中央

## 이혜숙

〈경상대 교수·사회학〉



한국사회에서 정치인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부정적이다. 오랫동안 한국 정치사회에서 우리 대다수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여러 형태들을 보여준 것이 그들 자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 뽑힌 사람들과 그 순위는 상대적으로 평가되었음을 밝힌다.

선정 기준으로는 △국내외 정치나 경제 사회문제를 보는 개인의 철학 및 입장 △과거의 경력과 구체적 활동 △개인의 전문능력 및 자질 △소속한 정당 △리더십 및 장래가능성 △노력하는 자세 △친화력 및 언행일치 등으로 잡았다.

- ①이철
- ②박찬중
- ③홍사덕
- ④이부영
- ⑤이해찬

## 김선화

〈연극배우〉

어렸을 적 누군가의 『너는 국회의원이 되어라』라는 말에 막연히 정치가의 꿈을 키웠었다. 그래서 「정외과」에 입학한 데... 지금은 연극배우다.

이분은 이러해서, 저분은 저러해서 몇몇 존경하는 정치가들이 있다. 그 중에서

좋아하는 한분을 꼽으라면 박찬중이라고 누구에게나 말한다. 선거 때의 그 정열적인 모습. 또 광고모델로 대중 앞에 설 줄 아는 그 드라마틱한 모습. 나는 언젠가부터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그분 모습처럼 정치를 한다면 참 멋진 나라가 될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 史美子

〈연극인〉



①박찬중 정견발표를 듣고 참 괜찮다고 생각했다. 광고에 나오는 것을 보고 정치인으로서 품위를 잃었다고도 생각했지만, 오죽 돈이 없어 저러랴 싶어 안타까웠다.

②김영삼 내 솔직한 심정으로서는 이분을 첫째로 꼽고 싶지만 현직 대통령이니까 순위를 바꾼다.

③이철 그가 현상수배당해 내가 살던 아파트 벽보에 나온 것을 보고 처음 안 이래, 국회의원이 된 후 펼치는 활동을 보고 큰 기대와 호감을 갖게 되었다.

④김동길 교육자로서 매우 존경했으므로 왈가왈부하지만 계속 기대를 하고 있다.

이 이상은 잘 모르므로 생략한다.

最高의 時事종합誌  
月刊中央

## 金 珉 淑

〈소설가〉



- ①이부영 지적이고 신뢰감을 주는人品.
- ②이해찬 꼼꼼하고 열성적인 의정활동.
- ③노무현 논리적 언변과 직선적 성격.
- ④이 철 성실한 의정활동과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
- ⑤김정길 무뎠던 성품과 원칙 지킨 행동.

## 이 미 례

〈영화감독〉



- ①이 철 짙다. 정확하다. 야당의원이면서 당리당락에 치우치지 않는다.
- ②김영삼 생각이 짙다.
- ③김대중 공부를 많이 한다. 영화와 여성에 대한 관심이 많다.
- ④김광일 인간적이고 정확하다. 광주문제를 다루는 청문회가 인상적이다.
- ⑤신순범 끈기·향토문화에 집착을 갖고 있다.

## 이 기 연

〈화가·임목생활문화연구소 소장〉

- ①제정구 끈질긴 집념으로 가난한 사

람들을 대변함.

②장영달 넓은 포용력과 서민적 품모가 돋보임.

③김근태 과학적 사고와 판단력. 그리고 순수함이 돋보임.

④박영숙 정치적 품위가 돋보임.

⑤인재근 넓은 포용력과 서민적 품모. 거기에 추진력이 겸비됨.

## 李 惠 淑

〈작가〉



①김영삼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 굴에 들어간 배짱과, 끝내 호랑이를 잡고야 만 독심이 돋보인다. 재야시절에 보여준 그의 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과연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싶다.

②김대중 그가 대통령이 되면 당장 죽어도 한이 없겠다고 말한 사람이 있었다. 5년 전 겨울 여의도광장의 대통령선거 유세장에서였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를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극단적으로 그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어쨌거나 지난 20년간 엄청난 박해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치사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었던 그의 역량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물러날 때를 알아서 비장하게 물러났던 그의 결단에 또한 숙연한 마음이 든다. 그가 물러난 자리를 메울 사람이 과연 누구일지

궁금하다.

③이부영 그는 참으로 다양한 민주화 투쟁의 경력을 가지고 누구 못지않은 역경을 헤쳐나왔다. 그런 만큼 듬직하고 신뢰감을 준다.

④박석무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5공 청문회에서 조선의원인 그를 처음 보았을 때, 어눌한 듯한 말솜씨가 도리어 진실되게 보여 호감이 갔다. 다산 정약용 연구가로도 알려져 있으니 牧民하는 도리도 잘 알고 실천할 것 같다.

⑤노무현 당의 결정에 승복하고 떨어질 것이 뻔한 지역구에서 출마하는 그 겸허함이 마음에 들었다. 인권변호사 출신다운 태도였다고 생각한다.

## 강 영 희

〈문화평론가〉

순위 관계없음.

김영삼 현실돌파력 뛰어나다.

김대중 원칙주의.

제정구 생활과 계속 일치하는 것 같아 호감이 간다.

이부영 좋은 정치가로서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여겨짐.

이들 중에서 세대교체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이부영·제정구를 앞세워야 한다고 여기지만 우리의 파란만장한 현대사의 흐름에서 보면 김영삼의 판단도 한계가 있으면서도 매우 높이 평가된다. 이전에 나는 김대중을 매우 높이 평가했으나 현실적인 정치를 염두에 두면 김영삼의 현실인식 또한 높이 평가됨을 숨길 수

없다.

## 김 미 화

〈코미디언〉



①김영삼 과감하다. 호소카와 수상이 왔을 때 넥타이 매지 않고 수수하게 차려진 모습이 돋보였다.

②김대중 유세하는 걸 봤는데 열성적이고, 현직 대통령에게 좋은 조언을 많이 한다고 들었다. 늘 국민을 위해 애쓰는 느낌이다.

③최형우 내 신랑이 좋은 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④김덕룡.

⑤황산성 나와 답아서 호감을 가졌다. 몇번 만나서 시원시원하고 서민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 이 주 희

〈무역업체 사장〉

①김대중 확고한 정치철학을 지닌 정치인.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정치인으로서 정치의 참맛을 알고 있는 것 같아서.

②이 철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가라는 느낌이 들린다.

③이부영 사심이 없는 깨끗하고 맑은 정치가. 공인이라는 느낌이 강하다.

④이해찬.

⑤박계동.

## 오 숙 회

〈여성학자·계명대 감사〉



①이우정 여성도 정치를 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남성들에게 여성의 입장과 권익을 대변하고 있으며 여성관련 입법에 적극적으로 활동.

②이부영 선비 같은 깨끗한 정치인으로 보임. 정치인들이 흔히 갖는 권위주의라든가 국민에 대한 우월감(또는 고압적 자세)이 보이지 않는 겸손한 정치인. 지역에서 여성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있음.

③이해찬 공부를 열심히 하는 성실한 정치인. 영유아보육법(탁아문제)·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 활동하는 점. 젊은 정치인으로서 명쾌한 논리를 가지고 있어서 신뢰가 감.

④박상천 합리적 원칙주의자로서, 여성에 관해서 보수적인 정치풍토에서 나름대로 합리주의를 건지. 성폭력특별법안을 기초하는 등 여성관련 입법에 노력. 주로 야당의원을 뽑은 것은 그간 여당의 여성정책이 미흡한 가운데 개인적으로도 드러나는 활동가가 없었기 때문.

## 金 璟 梧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올해만 보아도 여성정책 관련기구인 여성개발원·정무제2장관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을 때 의원들이 보인 무지한 발언과 수준미달의 행태들을 보고 크게 실망해서 거꾸로 묶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①김영삼 여성정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여성장관을 3명이나 임명하는 등 관심이 높은 것에 기대를 걸며 꼽는다.

②김종호 공무원 출신으로서 앞으로 펼쳐질 지방자치제 시대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꼽는다.

③김윤환 타협적이고 융합하려는 자세 때문에 앞으로 도래할 대화정치의 시대에 하나의 모범이 되리라 보인다.

④이응희 언론인 출신으로서 깨끗함이 돋보인다.

⑤이만섭 3선개헌을 반대하는 등 제도 정치권 내에서 지조를 지켰으며,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정치개혁에도 제대로 앞장서 나가는 자세가 돋보인다.

## 이 계 경

〈여성신문 사장〉



김대중·김덕룡·최형우·정대철·이철

변화가 많은 한국의 정치상황에서 자신의 소신대로 한 길로 꾸준히 온 신의파인 점에서 신뢰감을 주었으며 각자 모두 정치적인 감각과 지도자로서의 역량이 뛰어

나다고 봄(개인 평은 안하겠음).

## 朴 聖 姬

〈서울신력은행 대리〉

①이부영 양심적인 정치가. 차세대 지도자로 기대해본다.

②이철 진지하고 논리적인 자세가 눈길을 끈다.

③김영삼.

④제정구 빈민과 호흡을 같이한 휴머니스트로 생각한다.

⑤박희태 정치인 이전에 풍기는 인간미가 좋다.

## 조 은 수

〈TV비평가〉

①박희태 이전에는 관심도 없었지만, 단 1시간 「주병진 쇼」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보고 단번에 좋아졌다(TV의 위대함!). 말이란 가장 신뢰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뒤편의 여러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최선의 도구이기도 하다. 민자당에 이런 정치인이 있었다는 게 적이 안심이다. 그가 1위인 것은, 가장 연장자이기도 하고(정치판에서 그토록 오래 버텼다는 건 존경받을 만한 일 아닌가?), 또 여당에 있기 때문이다(야당보다도 여당에 한사람이라도 똑똑한 사람이 있길 바란다).

②장기표 내가 좋아하는 얼굴이다. 정치인들이야말로 얼굴이 많은 것을 말해주지 않는가. 얼굴에 전혀 살이 없고 전체적으로 가늘고 날카로운 인상은 그가 무엇

이든 쉽게 넘어가지 않는 성격임을 나타내는 듯하다. 이런 성격은 일단 믿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또 한편으로는, 이부영씨와는 달리 타협과 적응에 실패했다는 의미에서도 연민이 간다. 부디 그에게도 고전감래의 날이 찾아오길 바란다.

③김민석 잘생겨서. 하지만 그의 잘생김은 유명배우 출신에게서 보이는 쇠락하고 지저분해진 잘생김과는 전혀 다르다. 그의 잘생김은 여태까지 기존 정치인들의 얼굴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깨끗함과 세련됨, 교양과 지성을 보증하는 증표로 작용한다. 단, 처음보다 점점 얼굴이 변하는 듯해서 좀 불안하다.

④이부영 재야 투정으로 뼈가 굵은 사람이 기존 정치계로 옮겨와서도 이전과 같은 보폭으로 활동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대단한 인물이란 생각이 든다. 오랜 재야운동으로 딱딱하게 굳어지거나 목소리만 크지도 않았으며, 기존 정치계에 그대로 물들지도 않는 것 같다. 계속 좋은 전범으로 남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⑤이해찬 성실하고 이성적인 의정활동을 보이는 것 같아서.

## 송 은 영

〈주부〉

①김덕룡.

②최형우 남자답다.

③이부영 지적이고 예리하다.

④신기하 똑똑하다.

⑤이해찬 예리하다.

## 전 미 숙

〈자유기고가〉

①박영숙 여성정치인이 적은 우리정치 풍토에서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점이 인상깊다. 바쁜 시간을 쪼개어 여성문제에 관련된 여러 공청회나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가족법 개정 등 여성 관련 법률 개정에도 앞장서고 있는 점이 무척 돋보였다.

②이부영 구시대적인 정치풍토를 개혁해 나갈 새 시대 정치인의 대표적인 정치가로 평가된다. 오랜 재야활동을 통해 다진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제도권 정치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구현해 나갈 것이 기대된다.

③김정길 지역주의에 찌든 우리의 정치풍토에 의해 피해를 본 아까운 정치인. 맹목적인 「김영삼 대통령만들기」 바람으로 부산지역에서의 낙선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인데도 자신의 정치철학과 원칙, 큰 뜻을 살리기 위해 과감히 출마한 그 용기를 높이 평가하고 싶다.

④노무현 5공 청문회 당시 막강한 재력을 무기삼아 전 국민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자신을 변호하기에 급급했던 재벌 총수들을 치밀한 심문으로 몰아세웠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 정치인. 노동자들에 대한 그의 애정과 관심이 제도권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선거에서는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를 기대한다.

⑤장기표 오랜 재야활동을 통해 쌓은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제도권 정치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치인

이라 생각한다. 어려운 시기에 재야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가지기 쉬운 경직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정치인.

## 유 지 나

〈영화평론가〉

①제정구 정치인이 반드시 가난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인간이 사회와 다른 이들을 생각하면서 양심적으로 산다면 큰 부자가 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자신의 부를 정당화하려고 「부자는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정치가보다는 제정구 의원처럼 스스로 변민의 길을 택해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실천한 이가 있다는 사실을 볼 때 나는 정말 올바른 정치의 실체를 보는 듯하다.

②이우정 여성의 권위와 능력이 늘 남성의 그것에 억눌리는 우리 상황에서 그이가 보여주는 청빈한 삶과 원로다운 포용력은 신뢰성을 준다.

③박영숙 한국사회의 선진화와 진보를 위해서는 여성의 권리와 사회참여가 늘어나야 한다. 그런 점에서 여성을 위한 정치를 대변하는 신뢰감을 주는 매우 귀한 존재다.

④이부영 재야운동에서 기성정치로 이어지는 그의 행적은 일단 일관성이 있다. 그리고 적어도 그의 말과 행동은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한다는 믿음을 주기에 충분하다.

⑤이석현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났듯이 그의 의정활동은 국정의 감사자로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치인의 자세를 느끼게 해준다. 적어도 그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임무를 수행하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

## 양 순 입

〈태평양전쟁유족회 대표〉

가나다순임.

공로명 한일관계를 진정으로 개선하기 위한 핵심사항이 태평양전쟁 희생자문제를 해결하는 것임을 알고 노력하는 자세를 평가.

박찬중 소신있는 정치활동.

이부영 진지한 의정활동.

이우정 태평양전쟁 희생자문제가 국회 내에서 거론되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이해찬 치밀한 국정감사 활동.

## 이부영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4 오륜빌딩 603호  
전화)761-2721~2 FAX)761-2725

국회의원회관 784-5025, 788-2634  
강동(갑)지구당 470-1654~5